

農村部落計劃에 先行하는 集住化의 考察



工學博士 金 眞 一
漢陽大學校 工科大學 教授

1. 序 言
2. 集住의 Pattern
3. 部 落
4. 生活領域
5. 生産空間
6. 集住化政策
7. 結 言

1. 序 言

素朴한 생각의 農村部落計劃은 영농의 大型化 裝置化 System化 共同化 그리고 이것들을 企業化의 단계까지 向上시키고 싶은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農業의 分業化가 예측됨과 동시에 영농 생활과 일상생활을 分離하려는 志向性이 강하여진다. 現代는 모든 것의 集約과 集積의 相乘作用으로 비약하는데 이概念과 수법이 農村地域에 적용되기는 都市에 비교하여 대단히 어렵다.

農耕的 定住共同社會인 部落은 ताल적 개성에서 成長하고 생존수단의 食糧생산이라는 대전제앞에 個人의 뜻이 억제되고 集團의 成員은 公同의 作業 共同의 祭式 儀禮에 연대감을 깊이하면서 상호의 존적으로 삶을 이어왔다.

그리고 이들 農村部落은 크던 작던 都市에 의해 수탈된 과거였고 농민의 역할로 都市를 扶養하고 국가를 지키는데 그 생명을 제공해 왔다. 이와같은 농촌과 都市의 相對的인 측면에서 농촌을 대등한 위치에 올리지않고는 都市마저 항상 不安定하다는 사실을 아무도 看過하지는 않는다.

農村部落의 농민의 生活거점인 生活空間의 要件으로서 우선 生産요건의 확보가 居住者의 생존을 지탱하여주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며 기본적인 것이다. 농업의 환경변화에 대해 時間的 空間的으로 충분히 대응 될 수 있게 동적 System에 의한 生産조건외의 整備가 필요하다. 그리고 生活條件의 확보로서 교육 구매 의료등 地域 전체에 대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흔히 生産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많은 것이 희생되고 또 그것을 美德이라고 하는 社會風潮하에 우리는 살아왔다.

앞으로는 정보화의 전진에 따라 生活내용의 풍부화에 자극받게되어 施設의 多樣적인 공급도 퍼져못하게 될 것이다.

각종 시설의 건설 地域으로써의 기능분담 등 여러 요건에 대해 優先의 순위 整備 개발의 단계와 함께 生産조건의 확보가 취급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서 도시에서 생활하는자와 동등한 魅力있는 農村地域으로서의 生活空間이 구성되어야 겠다.

이 글에서는 農村地域의 基礎部落單位 발생의 史的背景 生活영역 또 農家와 耕地와의 空間距離가 生産및 生活에 미치는 점을 考察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 集住의 Pattern

限定된 空間에 同族 또는 異民族이 集住한다고 하여 반드시 정상적인 社會현상이라 할 수는 없겠



平澤郡 浦城面 谷橋里

다. 環境因子가 많고 자기에 유리하면 선택과 적응이 그쪽에 편들기 쉬운 習性이 작용하여 모든 生物들은 모여들게 된다. 集住生活은 個體에도 영향을 주는데 孤獨한 生物과 群生生物의 生理는 달라서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하나는 成員過剩 때문에 環境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有害한 習慣의 금지되는 作用이다. 이것이 바로 群集效果라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感覺刺戟에 의한 個人相互의 作用 即 社會親和性이 이루어져 동료의 영향을 느끼게 된다. 그 예로는 科學者가 세균을 培養할 때 數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번식하지 않는다던가 또 海産虫의 일종에는 集團을 만들면 담水에도 견딜수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일은 繁殖율도 群集된 成員수에 左右되는 셈인데 우리 祖上들이 自然에 適應하는 過程도 이와 비슷한점이 있다.

반면 쥐는 數가 어느 限界를 넘으면 숫컷을 죽여 生殖을 制限하고 새앙쥐의 死亡율이 높아지는데 우리 人間은 아직 이러한 式의 흉내로 人口의 조절을 하려하지는 않는다. 人間社會에서 家族이나 親族은 生活의 基本단위며 地域의 親族共同體가 解

體되기 시작한 近代化의 과정에서도 의문의 여지는 없다. 家族이나 親族의 構造機能은 역사적으로 변화하고 또 地域的으로 다양하지만 家族은 夫婦 親子, 兄弟, 姉妹로된 近親者의 集團이며 人間적으로 가장 강하게 묶어진 集團이라는 點에서 일치한다.

家族, 親族, 部族의 集住化가 自然部落의 발생이다. 근세 아이누族의 部落은 보통 數戶의 집으로 구성되어 Katon 이라 불리운다. 1Katon에 20 戶以上은 극히 드물고 이정도면 大部落에 속한다.

이들은 1戶가 서있어도 1Katon 이라 부르고 1人의 長이 있다.

Tibet의 山地에서는 一妻多夫制가 지배적이다. 이것은 선교사 마저 證인하고 있으며 그것이 社會에서는 福祉로 解釋된다. 그들은 또 지방에 따라서는 土地가 不毛하여 食糧事情으로 家族마저 분리된다. 이와같이 아이누族의 소규모 部落이나 Tibet의 一妻多夫制는 食糧生産과 관계되며 그것은 食糧獲得地와의 공간거리의 문제가 된다. 卽 家族의 구성 集住의 규모 集住群 상호의 관계는 食糧獲得의 방법과 수단에 의하는 바가 크다.

3. 部 落

部落은 農村, 山村, 漁村으로 나누어지고 우리는 農村——村落——마을로 自然部落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마을은 원래 무리, 群의 뜻 「뭍」, 「마실」 등으로도 불린다. 또 韓國의 部落은 「뭍울」 「마을」 「뭍」 「뭍」 또는 「뭍슬(슬)」 등으로 불리어 왔는데 이러한 것들은 部落共同體의 명칭이었거나 部落集合所의 고유명사 였다고한다.

部落共同體는 原始共同體의 최후단계인 農業共同體와 결부되어 原始社會末期에 존재하였으며 이것을 家父長의 世帶공동체가 解体된후에 형성된 地緣의 共同體다. 그러므로 部落공동체는 生産手段의 共有내지 共用과 再生産활동의 공동기초로하여 결합된 소경영농민의 地緣集團이다. 또 韓國의 農業은 기후 토지 또는 作物등의 사정에 의하여 人工灌溉가 不可欠의 요건인데 이것이 部落共同體의 堅固化를 이룩한 주된 요인이기도하다. 한편 국가는 이 견고한 部落制度를 이용하여 租稅와 社會秩序를 유지하였으며 그責任을 部落이 共同으로 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部落을 우리나라에서 史的으

로 규명하면 辰韓, 徐羅伐六村의 史記에도 그 윤곽이 發見된다. 徐羅伐의 六村(六部)에 있어 初期의 六村은 일종의 氏族的部落으로서 各村을 族長下에 血緣 또는 地緣의으로 결합된 社會조직이고 후기六部는 일종의 행정구역으로서 氏族社會가 붕괴되어 정치조직이 발달하던 때의 產物이라 할 수 있겠다.

統一新羅나 高麗에 있어서의 부락은 社會構成의 토대였을뿐 아니라 행정상 기본단위를 이루었다. 그 종류는 대체로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鄉, 所 部曲과같은 賤民集團이고 또 하나는 일반 농민이 居住하는 보통부락이다. 鄉, 所 部曲은 統一新羅 이전에도 있었으나 統一新羅以後에 뚜렷이 나타난다. 한편 三國史記에는 鄉, 所, 部曲을 雜所라 記하여 있다.

鄉, 所, 部曲은 마을에사는 고려시대의 賤民集團인데 특수한 지방행정구역으로 알려지기도 하였으나 鄉과 部曲은 대체로 同一한것이고 所는 手工業에 종사하는 특수한 隸民集團으로서 官營工房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部曲의 선구는 종족노예이다. 原始조선의 붕괴과정에서 共同体相互間의 정복전쟁의 결과 정복자는 被政服者공동체를 그대로 본거지에두고 수탈하였다. 그사회의 대부분은 노예적 지위에 있는 피정복민, 전쟁포로 謀逆罪人의 유족 歸化民의 부락으로 구성되었고 전시에 는 兵士로 동원되었다.

統一期の 新羅에 이르러서는 隸民이 점차적으로 農奴로 移行되고 農노적生産關係로 편성 되었다. 部曲以外的 일반부락에 처한 당시 戶口장부에 의하면 하나의 部落 戶數는 많은것이 15戶 人口는 125名, 작은部落의 戶數는 10戶 人口는 106名 이었다. 따라서 一戶의 家口數는 8.3내지 10.6名이다. 1485年(李朝)에는 五家作統法이 있어서 部落의 隣保自治組織法으로서 5家1統으로 조직, 里坊 밑에 統을 두어 서울에는 5戶1統으로하여 統主를 두고 地方은 5統을 里로 하였다.

仁祖朝의 朴馨遠의 기록에는 5家를 統으로 하고 10統을 里로 하였다.

中世이후의 한국부락은 血緣의集團을 土台로하는 동족부락(班村)과 대체적으로 民村의 성격을 띤 隣保的集團인 近隣部落 그리고 특수계층적 집단으로 구성된 特殊部落이 있다. 이 특수부락은 旧時代의 吏族, 營吏, 驛吏 즉 李朝時代까지 地方庁이나 屯營, 驛院소재지에 있는 官職에 종사하고 있던자

表 1. 著名同族部落發生年代別表(1930)

道別	500年 以上	300 以上 500 未滿	100 以上 300 未滿	100 未滿	不明	計
京畿	27	85	70	2	51	235
忠北	10	43	31	2	48	134
忠南	12	35	20	3	61	131
全北	15	26	22	—	29	92
全南	31	101	52	1	53	238
慶北	36	110	44	4	52	246
慶南	8	53	17	2	55	135
黃海	24	53	31	1	34	143
平北	7	25	9	—	7	48
平南	14	49	26	3	20	112
江原	12	25	14	1	27	79
咸南	11	29	4	1	18	63
咸北	—	12	11	3	3	26
計	207	646	351	23	458	1685

들이 中心이 되어 集團生活를 하고 있던 部落과 寺院의 소재지의 僧侶의 部落 北韓地方의 일부에 집단생활을 하고 있던 在家僧의 部落 旧白丁階級の 집단부락, 그리고 洋人(成均館에 속하여 대대로 쇠고기를 팔던 사람).

官奴 寺奴등이 집단생활하던 部落등이 있었다. 1930年 朝鮮總督府가 실시한 各府外郡의 조사에 의하면 東大門밖의 旧洋人部落, 驚梁津의 巫女部落 京畿道 一隅의 宦官部落 또 各市街의 一區副에 集居하며 있던 妓生部落이 있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유사宗教로 指彈받고 있는 신자들의 部落 도시의 媚女村 外人상대의 基地村등을 들수 있겠다.

4. 生活領域

動物은 人間과 달라서 넓은 자연을 自由로히 쓰고 집의 개념이나 기타 의무가 없는것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가장 自由로운것은 人間이다. 人間에서도 知的水準이 높을수록 여러가지 전후관계를 따져 自意에 거슬리는 法律에서 避할 수 있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 비문화인의 習性이나 禁忌는 兇事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범하려 생각지도 않는다. 하물며 動物은 어떤일이든 신경계통에 새겨진 生來의 本能에 따라 행동하므로 거의 한정된 自由만 갖이고 있다. 이와같은 領域에는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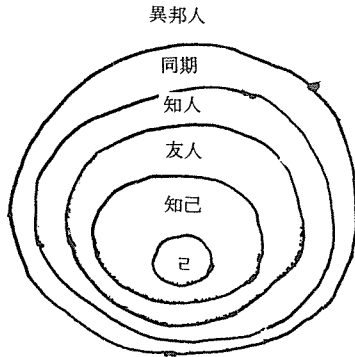


圖1 自己發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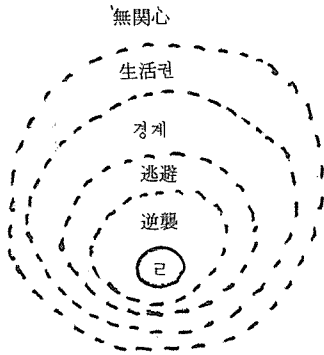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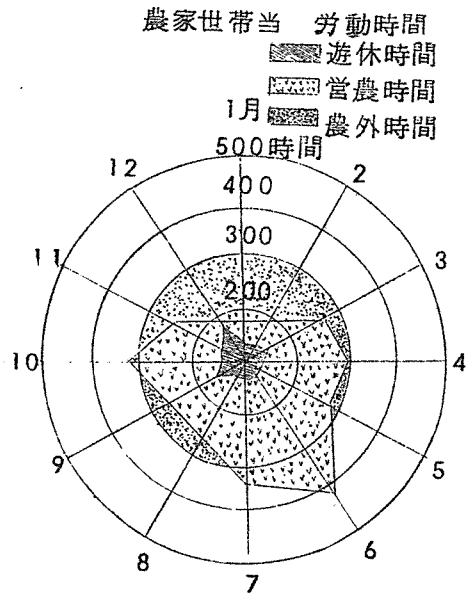
圖2 動物의 自己防禦

래의 領域과 行動域의 두가지가 있다. 住居 休息의 장소등 外인을 전혀 넣지 않은곳과 때때로 먹이를 얻으러가는 地域으로 여기에는 同族은 自由로 출입이 된다. 이것이 人間社會의 住居와 部落의 領域과 같다.

농촌부락의 경우 일차적인 行動域은 食량을 얻는 耕地이다. 그들의 생활 根幹은 住宅에서 이루어지는데 農家라는것은 農民의 住居와 농업용건물의 集合體며 耕地에서 나는 모든것의 投入起點이기도하다. 근대적 農家는 都市家庭과 같이 물자의 서비스를 요구한다.

耐久材, 非耐久材 都市에서의 각종기업과 각종 公共機關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으려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農民은 消費者임과 동시에 이윤을 얻기 위해 農産物을 생산하는 기업가이기도 하다.

圖 3



農林統計年報 1965

耕地와 農家, 이것은 生産과 生産物의 集散 근거지며 販賣網의 起點이 되는데 이 양자가 部落形成의 기초가 된다.

農事가 영위되는 상태에서 볼때 耕作領域은 空間距離로 대치되는데 여기에는 農産物과 이에 관련된 물건과 사람의 움직임이 관련지어져서 중요하고 또 어떤 물건을 이동한다는것은 最低 한사람의 이동이 요구되며 일의 변화는 領域(空間, 位置)의 변화를 말한다. 그러기 때문에 耕地에서의 모든 活動은 몇사람이 몇시간 움직이였는가로 표시가 가능하고 여기에 農牛나 농기구가 몇시간 일하였는가도 補充하면 이 所用시간을 金錢的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다.

흔히 이것을 現행 時間單位의 보수를 이동에 要한 시간으로 말할수도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것에서 距離라는것은 人間의 時間과 동일한것으로 볼수있고 그 이점을 타의 金錢상의 支出이나 收入과도 비교될수 있다.

우리나라의 平均농가당 就勞人員은 2.91名이며 (1970年 현재) 戶當 가족노동일수는 662.5名 (1963年 현재)이다. 이것을 圖3과 같은 營農時間에 適應시켜 其中 農具, 肥料, 生産物 等の 移動 (運般)

에 요하는 시간을 영농시간의 1/3로 해당시켜보면 이에 要하는 時間의 낭비가 너무나 큰것을 알수가 있다. 그러나 여기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비를 영농시간의 1/3로 하였다는 假說에의 筆者의 研究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英國의 농장에서는 움직이는데 필요한 시간과 물건의 量에 의해 전노동시간중 이동에 요하는 시간비는 약 1/3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다.

“오란다”에서는 트랙터 馬의 작업시간의 반이상이 생산물과 자재의 수송에 보낸다고 한다. 이 비율은 세계 어느곳이든 흡사한 것으로보고 農民의 노동을 절약하려는 기도는 그들의 作業空間의 pattern에 수정을 加하려는 부단한 노력은 당연한 것이라는것을 部落計劃에서는 무엇보다 중요시 하여야 하겠다.

中國의 土地利用調查 報告中(1937年) 約 17000 農場의 農家와 耕地와의 平均距離가 0.6km며 최저는 四川 米作地區의 0.3km. 가장먼거리는 全國平均 1.1km이다.

表 2. 各國의 理論的 平均距離

베루기	0.3~1.0km
오란다	0.3~1.0
스위스	0.3~1.0
불란서	0.3~2.0
서독	0.3~2.0
불가리아	2.0
루마니아	0.7~2.5
스페인	0.3~6.0

Dovring. Land and Labdour
in Europe in the Twentieth Centry, 1965

5. 生産空間

원거리의 耕地는 言外로하고 근거리에 있으면서도 耕地距離가 커지는 이유의 하나는 土地所有의 보편적인 형태이지만 耕地가 대단히 좁고, 길때 農

家가 그 어느 한쪽에 위치하고 있을때다.

이것은 도로나 河川의 沿線에 일렬로 農家가 있을때 좁고 긴 形狀의 耕地로 분할이 되기쉽기 때문이다. 또 農家와 耕地의 距離가 耕地의 형상에도 영향이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細分化된 耕地 특히 개간지에 있어서 耕地가 數個 그리고 農家에서 방향마저 각 각으로 다를때의 사람과 물건의 이동에 소모되는 時間의 비중은 生活領域에서 記한 英國이나 오란 다의 移動에 요하는 時間比에 결코 낮지는 않을것 으로 본다.

耕地의 距離가 粗生産, 純生産에 영향을 크게 주는데 純生産이 總生産보다 속히 저하한다. 그 數值를 보면 단지 1km의 平均距離에서 粗生産 16% 純生産은 44%가 저하한다. 2km의 경우에는 純生産을 극히 적은것으로 나타난다.

T. J. Virri의 조사나 Awiiala의 研究에 의하면 粗生産은 거의 같은 비율로 저하 하지만 純生産低下는 다소 다르다.

最初의 1km에서 급속히 줄지만 그후의 減少比는 적은 편이다. 이상의 비율은 耕地의 평균거리가 1km 정도가 妥當하다는 證明이 되며 그렇게하기 위하여서는 耕地의 形狀과 交換 分畝의 정책적인 시도가 우선 특정한 地域에서 실시하여 불만하다.

일반적으로 기업화된 대규모 농장은 純生産이나 粗生産이 低下되기 마련이다.

人間生活에서 먼 친족보다 이웃四寸이 더 가깝다는 것 처럼 農産物의 生産은 土壤의 성질이나기 타요인보다 距離에 가장 민감한것이다.

다음 表 3, 表 4에서도 설명되지만 耕地가 농가에서 1km 멀어질 때마다 收穫의 9%저하. Filland에서는 15~20%까지도 低下한다고 한다. 또 美國의 농업노동자 一人當 23人分の 食糧을 生産해

내는데 1人當 食糧소비량은 過去 40年間 증가가 없다. 소비자의 소득이 10%증가 하여도 食費增加는 2%이하에 머문다. 그 2%도 품질좋은 것 加工販賣段階의 서비스에 쓰여진다. 換言하면 소비자는 量的으로 현재 이상의 食糧構入을 하지 않으나 오히려 형태를 바꾼것 또는 더 편리하게 포장된 것을 바란다.

수요구조는 본래의 농업生産活動단계에서 식품의 流通 加工으로 분명히 중점이 옮겨진 감이질다.

表 3. ha당 生産量과 所要距離 關係

소요거리 km	A. Wiiala		T. J. Virri		Suomela
	粗生産	純生産	粗生産	純生産	純生産
0~0.1	100%	100%	100%	100%	100%
0.5	92	78	89	67	83
0.1	84	56	80	50	68
1.5	77	34	73	40	56
2.0	69	12	67	33	46
3.0	—	—	57	25	32
4.0	—	—	50	20	—
5.0	—	—	44	17	—

6. 集住化 政策

部落Pattern에 集住化政策이 영향이 있다면 營農方法의 개선과 아울러 농민을 지도계몽 한다는 구실하의 統制가 있고 그 수단으로 墟村의 유지가 장려되고 강화되는 傾向이 있다.

일반적으로 部落은 영구적인 것이고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되었으나 아프리카나 南美에서는 하나의 住居에 5~6年 이상 사는 법이 없고 他地方에다 住居를 지어 옮기는 데도 있다. 이런 이동 耕作方式에서도 거리에 대한 문제는 永住部落의 경우와 전혀 同一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나라에 있어서도 農家와 耕地의 近接性이 자연적 肥沃度の 優位에 두었으며 이런 것들이 土地利用의 同心圓의 배치의 要因이 된다.

治安確保와 軍事上 필요로 마리아 아루제리아에서는 確立된 정치체질서에 대한 게릴라 活動이 人口의 分散的 住居에 의해 조장됨으로 엄밀한 군사적 조치로서 새로 건설된 部落이나 확대된 部落에 주변의 農民을 강제적으로 모았다. 마레이시아의 경우 部落中 12個는 人口 5,000名以上 162個는 1,000名以上으로 수용했다. 이때 部落의 위치 선정이 軍事的인 이유로 될 때는 丘陵地의 斜面에 자리잡는 이 부락은 給水供給이 不良했고 부근 土壤도 不良하여 政權당국은 그 후 部落을 방어에 적당한 丘陵에서 전망이 可能한 범위의 平地에 건설토록 타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農業的인 難題가 발생하여 生産高는 급격히 저하 되었다. 이 移動計劃에 "마리아"는 約 60萬名이 住居하였다. 이들 部落이 軍事的 規制에

서 解除되었을 때 현상유지를 위한 어떤 신중한 措置가 없는 한 현재의 人口를 유지할 수는 없다. 1945年 가리아에 존재했던 새 部落 또는 재편성된 部落中 38個는 6年 후에 無人村이 되었다는 실례도 있다. 반면 19世紀前半에 걸쳐 내란에서 住民의 安全을 위해 세운 屯가 諸島의 部落은 아직도 존속한다. 半世紀 以上 강제적 住生活후 平和를 회복하고 土地分配를 적절히 실시한 데서 이것이 가능하였다. 강제성을 띤 集團政策은 군사적인 目的 이더라도 사상적 배려에서도 결과는 동일하다. 당국의 農民에 대한 政治的 規制를 유지하고 計劃된 生産物의 할당량을 확보하는 의도도 협동적 自活의 形態를 취하는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한편, 기존 部落에 있는 小部落으로 전개 되는데 이것은 점차 擴大되어 母部落에 對한 子部落이 된다. 이 원칙이 시초에 나타나는 것은 鳥獸에서 農土保호 목적으로 穀物耕地 中間에 세운 것이며 허수아비, 원두막, 퇴비솥 등으로 볼 수 있고 集團農場에서는 가축사육용 專用部落이었다.

人口가 증가하는 상황하에서는 2~3km 떨어져 계절적으로 居住하는 衛星部落이 항구적 居住地로 변하고 이 子部落은 母部落의 이름을 그대로 통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와 佛領 "스-단,,에서도 거의 같다.

表 4

15ha以上 耕地에서 實際作業時間을 年 ha 당으로 나는 延時間

거리 km	牧草地	耗地
0.5	220	400
1.0	210	360
2.0	180	300
3.0	160	240
4.0	130	190
5.0	110	150

西歐의 일반적인 政策으로서의 農家中 어떤 것을 마을에서 그의 耕地로 옮겨 그 결과로 나타나는 部落 pattern이 하나의 中心部落이다. 일부 농장은 그곳을 본거지로 하여 耕作하고 그 주위에 고립된 農家가 있게 된다. 이러한 農家の 移轉은 특히 西獨

과 西瑞에 많아서 우리는 이곳에서 孤立된 農家の 景觀도 볼 수 있다.

또 泰國과 “멕시코”에서도 많은 작은 고립적인 部落과 獨立된 農家가 세워졌다. 이와같은 部落의 集住가 아니라 部落의 分散은 生活領域과 生産空間에서 論한바와같이 距離와 移動이라는 問題에 對한 手段의 解答이 그 社會여건과 더불어 解決되었다는 것이 前提된다.

7. 結 言

都市의 범란 農村의 황폐가 대립되는 상황속에서 동시에 相互 補完하려는 上位計劃과 政策에는 言及을 피하고 農村部落計劃이 耕地와 農家와의 空間距離 문제에 가장 重點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점을 論하였다. 물론 이 計劃은 上位計劃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農村部落計劃의 目的이 여기에 居住하는 農民의 快適한 生活環境을 조성하는데 있고 그것을 지지하여줄 生産구조는 그 目的을 유지하는 手段이라는 次元을 달리하는 前提를 分明하게 할 필요하에 農村部落計劃의 意義가 있다.

生産者 農민을·도시외하고 食糧증산에만 主안점을 두는 計劃은 序論에서 말한바와 같이 그것은 都市에 의해 取탈되는 歷史의 반복되는 結果가 되기 쉽다.

물론 農민의 쾌락한 생활환경을 施設면에서 先行할 수 있는 우리의 현재 여건은 아니다. 農민과 廣域圈內的 모든 生活의 活動的 Pattern의 變化를 豫測하고 生産性的 向上, 生活水準의 向上에따르는 生活要求의 다양화에 순응 할 수 있는 計劃이 어야 한다. 그 計劃에는 生産物面에서 加工 貯藏 流通 販賣 過程을 대상으로 하는것과 生活面에 서는 教育 保健 文化 娛樂等 施設物의 配置 규모와 그의 順位등 都市와 農村을 이어주는 生態的 空間의 秩序를 形成하여주는 計劃의 認知 내지는 意識下의 農村部落計劃이어야 한다.

参考文献

- 1 善生. 朝鮮의聚落 1933
- 2 森谷. 東洋的生活圈 1939
- 3 青水. 封建社会と共同体 1942
- 4 堀 . 集團の社会学 1972
- 5 Kohn. Urban Responses to Agricultural change. 1961
- 6 Michael. Rural Settlement and land use. 1962
- 7 金眞一. 購買施設(京畿, 平沢, 安仲)韓美技術協力誌 1971
- 8 寺門 金眞一. 農村集落(京畿, 平沢)日本建築学会 1972
- 9 吉阪 金眞一. 集落の集住化(忠南, 公州, 正安)日本建築学会 1973
- 10 中村 金眞一. 集落の特徵(忠南公州, 正安)日本建築学会 1973